

개념어사전

자세하고 꼼꼼한
해설로 대박!!

실전문제 & 피드백 설명
으로 또 한 번 대박!!

좋은 해설 & 문제 필수 학습

• 13. 시적 화자의 어조

합격





[시적 화자의 어조] 어조, 친근한 어조, 독백적 어조, 풍자적 어조, 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영탄적 어조, 비판적 어조, 대화체

제1편 문학

1 시적 화자의 어조

개념

어조란 시적 대상이나 독자에 대한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말한다. 어조는 시적 화자의 태도나 정서, 작품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시어나 서술어의 종결 어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독백의 특성

'독백'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서 중얼거림이라는 뜻이다. 연극에서는 혼자 상대 배우 앞에서나 관객 앞에서 하는 대사이다. 독백의 효과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조 파악

- **어말 어미를 파악:** 어말 어미를 통해 명령형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어미는 남성적 어조, 경어체의 사용은 여성적 어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어조의 유형:** 독백적 어조, 풍자적 어조, 비판적 어조, 영탄적 어조 등.
- **어조의 기능:** 어조는 시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으면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 **어조의 변화:** 어조의 변화는 화자의 태도와 심리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 한다.

2 독백적 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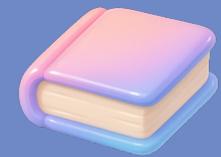
개념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청자)이 따로 없이, 화자 자신의 내면을 혼잣말을 하듯이 표현하는 어조이다.

예시 지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윤동주, 「서시」

이 시에서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에서 양심을 지키며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삶, 즉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혼자 중얼거리듯이 독백체로 써내려 간다.



[시적 화자의 어조] 어조, 친근한 어조, 독백적 어조, 풍자적 어조, 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영탄적 어조, 비판적 어조, 대화체

제1편 문학

3 친근한 어조

개념

대상을 가깝게 대하고 누구하고도 허물없이 친하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조가 친근한 어조이다. 비격식체를 많이 사용하며 '~요, ~죠'를 사용할 때 잘 나타난다.

예시 지문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이 시에서 화자는 전원 생활의 만족감을 통해 달관의 태도를 지닌다. '-소, -요, -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며 독자와 대화를 하듯이 친근한 느낌을 준다.

격식체 & 비격식체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두 상대 높임법에 속한다. 격식체는 의례적으로 쓰며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따위가 있다. 비격식체는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예) 가시겠습니까? [격식체]
갈까요? 가요. [비격식체]

4 풍자적 어조

개념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쓴 것을 말한다. 풍자적 어조는 현실의 상황이나 모순 따위를 비웃는 태도가 드러난 말투를 가리킨다.

예시 지문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랴 왜는다 사자.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 소아리 팔족 대아리 이족 청장 아스속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하렴은. - 작자 미상, 「댁들에 동난지이」

- 이 사설시조에서 화자는 '게젯'이라 할 것을 굳이 '동난지이'라는 어려운 말로 현학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비판과 풍자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풍자 & 해학

풍자는 비판적이고 조롱 섞인 말투를 통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에 해학은 상황의 불완전성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풍자를 할 때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시적 화자의 어조] 어조, 친근한 어조, 독백적 어조, 풍자적 어조, 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영탄적 어조, 비판적 어조, 대화체

5 단호한 어조

제1편 문학

개념

단호한 어조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밝히는 말투를 가리킨다.

예시 지문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물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

이 시에서는 종결어미 '~라'를 사용하여 단호하고 확고한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단호한 명령형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담담한 어조

개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담담한 어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분하고 평온한 말투를 가리킨다.

예시 지문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꽝꽝** 얼어서 /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

화자는 우연히 보게 된 소녀의 모습을 슬픔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담담하다'의 사전적 의미

'담담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차분하고 평온하다 또는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주관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의 어조] 어조, 친근한 어조, 독백적 어조, 풍자적 어조, 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영탄적 어조, 비판적 어조, 대화체

7 영탄적 어조

제1편 문학

개념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종결 어미 등을 활용하여 드러내는 것을 영탄적 어조라고 한다.

예시 지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이 시에서는 죽은 영혼을 부르는 화자의 애절한 심정을 영탄적 어조로 잘 표현하고 있다. '-구나, -이여' 등의 어말어미를 통해 슬픔을 절제하지 않고 표현했다.

'비판' & '비난'

비판은 논리성을 바탕으로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고 비난은 감정을 포함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현을 의미한다.

8 비판적 어조

개념

어떤 상황이나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가 말투에 드러날 때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예시 지문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박봉우, 「휴전선」

이 시에서 화자는 휴전선을 소재로 하여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의 불안한 모습을 통해 이념 대립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의 어조] 어조, 친근한 어조, 독백적 어조, 풍자적 어조, 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영탄적 어조, 비판적 어조, 대화체

9 대화체

제1편 문학

개념

대화체는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를 말하는데, 시 속에 두 명의 화자가 나와 대화하듯이 서술할 수도 있고,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듯이 서술할 수도 있다.

예시 지문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려고 - 갑녀의 질문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임의 사랑을 받음 직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것인가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 정철, 「속미인곡」

▶ '속미인곡'은 전작인 '사미인곡'과는 달리 갑녀와 을녀가 주고 받는 형식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인물의 대화 형식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문체에 대하여

문체는 작가의 개성과 관련된 것으로 작가가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의 개성적인 특색이다. 시대, 문장의 종류, 글쓰이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드러난다.